

현릉 문종대왕, 현덕왕후 기신제향 봉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구릉 현릉(문종대왕과 현덕왕후의 동원이강릉)에서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현릉봉향회 주최 기신제에 권문의 부정공과 영해문중(영덕군중친회) 후손 50명과 안동,서울지역 부정공과 분들이 참여했다.

의식은 '세계문화유산' 답게 정부 주도로 해서 관광객이 교육을 목적으로 많이 왔고 그중에는 서양인과 중국인도 있었다.

권문에서는 의식이 시작되자 남성은 대부분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고 여성은 치마를 단정하게 입고 참례하여 우측에 양

복 차림의 이씨들과 대조를 이뤘다.

권문의 참례자는 아헌관으로 權重達(부정공과 32세, 영덕 부원군과 부회장), 집사자 權寧宗(부정공과 34세) 능사 權純源(부정공과 37세)이 참례했다. 참석자는 부정공과 權容柱(부정공과 38세 마에신생 유족 보존회장)종회장, 영덕중친회장 權炳潤(부정공과 34세, 부정공과 영해문중)회장등이고 피야별 아래에 진행된 제례에 권문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참관객들에게 보여줬다.

앞으로 최대왕릉인 동구릉 현릉 肫晨

祭는 더욱 많은 참관객이 찾아올 것이니 차후에는 권문의 참배객도 늘리고 복식도 더욱 정제하여 엄숙함과 경건함을 높혀서 제례의 형식을 더욱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肫晨祭는 부정공과 영해지역 부원군지파에서 주도해야 하지만 대종회와 타지파의 지원이 필요하고, 차후 '서울지역부정공파' 축전을 더 찾아서 이를 활성화하고 봄, 가을에 거행되는 '중묘제례'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하여 내년에는 부정공과 5명이 참여하는 것등을 '전주이씨중약원'과 협의했다.

참례단은 귀가 길에 영릉 세종대왕릉을 참배하고 인근 신륵사 경내를 둘러봤다.

영해지역에 부원군의 조카인 권책이 겨우 죽음을 면하고 유배되어 일기를 이루고 또 그 후손이 세거한 花樹樓(영덕군 창수면 갈천동 옥천마을),曲江古宅(영해면 원구리), 五峯宗宅(창수면), 왕비위, 彦谷祭(각리), 大峯祭舍, 觀魚臺, 權伯宗孝子碑閣(안동 안기동, 현덕왕후조부)등 훌륭한 유무형의 자료가 많다. 이런 명소들을 축전들은 물론 관광객이 방문하는 코스로 만들어서 그 빼어난 절경과 효성의 역사를 되뇌이는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처럼 엄청난 문화 콘텐츠를 담당하게 후손에게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1회 중보편집위원회 회의

6월16일 11시부터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대종회장 권해옥,수석부회장 권영익, 상임부회장 권영성, 편집위원장 권오신, 종사편찬위원장 권오훈,위원 권해조, 권영섭, 권혁채, 권중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장 권오윤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임명장 수여와 더불어 중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보는 권오신 위원장의 책임하에 3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관형, 제호, 내용 등에 대한 재조정과 독자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선임장을 받고 있는 권오훈 문헌편찬위원장

병곡종택에서 가일 입학조 권구 선생 학술발표회 개최

2017년 5월 27일 유교문화보존회가 주관하는 안동처사의 삶 현장 찾아가는 학술발표회가 안동시 풍천면 가일마을에서 열렸다.

발표자는 안동대학교 한문학과교수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이었다. 장해숙의 사회로 오전11시 개최선언과 함께 이재업 유교문화보존회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권영세 안동시장의 축사, 김성진 안동시의회의장 축사와 영종회 이원홍회장의 축사등이 있었다.

가일입학조(1405-1473) 7대손 권구 병곡선생(1695-1778)에 대한 논문은 '병곡 권구의 현실인식과 선비정신 권유록을 중심으로'인데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이종호 교수는 논문에서 영조25년간(1672-1759) 18세기 안동 선비정신의 대표할 주자라 할만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로 압송된 병곡 권구선생은 영조대왕이 '영남학맥의 계통적 고찰을 위해서도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극찬을 하고는 즉각석방



했다. 그날 행사장에 참석한 인원은 400명이었으며 서울,부산,대구,영주,포항,제천,의성,구미,영양,청송등의 유림과 각 문중에서 대거참석했음은 물론 병곡선생도 대단한 처사의 삶을 마감하셨지만 약 600년을 향해가는 가일문중을 본다면 일항조 '함'의 이남 '산'은 1486년에 세상을 타계하신 어른으로 조선초 성조시 문과급제에 장원하셨고 '함'의 맏손자 권

주(1457-1505)께서는 문과에 아원을 하신 어른이다. 이분들을 조상으로 모시는 가일문중의 자손이 된것도 입학조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필자가 느끼는 점은 서울에서 종택에 참석하신 참의공의 18세손이며 시조태사공의 36세손 권기욱 전 서울청년회장역임자와 참의공 19세손인 권정철 회장 등 참의공 문중회장 두분은 서울에서 현장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향교전교를 역임하셨던 의성의 권세목 전교와 남후면 유도회장의 참석을 더욱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행사에 권대직교문과 권대원, 권대경, 권대승, 권대중, 권대균씨 등 몇 분은 권중만, 권병기 등의 수고와 끝말이 많았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미 시각은 13시 30분인데 행사가 완료되고 400명의 하객들은 점심도시락을 받아들고 산회했다.

파주시 고려통일대전 유지재단에 참여하자!

고려사(史)에 관한 사료와 유물이 전시되는 고려통일대전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에 위치하며, 도비를 포함해 모두 160여억원이 투입돼 부지 4만200㎡에 들어선 고려통일대전은 왕과 공신의 위패를 모신 정전(正殿)과 충공신각(忠功臣閣), 능지기들의 거처인 수복방(守僕房) 등으로 구성됐다. 이후 사실상 고려창업의 1등공신인 권철 시조께서도 배향되어 있으나 이 유지재단의 파패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저감 되고 있다.

원래 고려시대 당시를 재현해 체험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역사관도 들어 걸 예정이나 2007년 일부 완공이후 거의 폐쇄 상태나 다름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함께 훌륭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건물을 막대한 국가예산과 민간출연금을 헛되이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고려계국의 원훈인 권씨종친회가 적극 개입하여



이의 유지에 역할해야 할 것이고, 이는 실제적 경제효익도 기대할 수가 있다.

“소박하고 정갈한 마음의 고향”

권혁진 시에 담긴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바람처럼 흩어져버릴 인생- 내 글이 누군가에게는 거울이 되고 등불이 되고 사유와 역사가 된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권혁진 저서 |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나의 저서 출간, (주)미디어바탕과 함께하세요 기획 - 집필 - 퇴고 - 출간까지 귀하의 인생과 노하우를 담아드립니다

(0614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길 23 금영빌딩 5층 Tel, 02)420-6791-2 Fax, 02)420-6795



소능 권혁진 시선집 | 권혁진 56,000원 | 1,232쪽 | 문학바탕



권혁진(權赫振) 추밀공파 36세

시인, 아동문학가 한국문인협회 아동문학 회원 국제문학비탕문인협회 총청지회장 중원문학회 회장

민족통일협의회 총주부 부회장 성균관 추주향교 장의 한국서정문학상 수상 한국이삭문학상 수상